

# 새한, 화학섬유 웰빙열풍 선도!

항 알레르기 및 항균·다이어트 기능 부여 가공기술 개발·적용

새한(대표 박광업)이 웰빙 바람에 편승해 알레르기 방지 Polyester 직물 및 항균·비타민E 가공 등을 한 제품을 선보였다.

알레르기 방지가공은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폴리에스터 직물의 단점인 정전기 발생을 제거해 정전기에 의한 피부자극 예방 및 박테리아의 번식 억제를 통한 냄새제거, 반영구적인 제전성 유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정전기 방지 가공이 염색가공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탁을 반복할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은사를 사용해서 개선됐고, 꽃가루 및 황사 등의 먼지 부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건조열, 눈 가려움증, 재채기, 기침 등의 증상이 완화되는 항 알레르기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은사는 XX 반응을 통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이밖에도 새한은 나노가공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주력하고 있는데, 나노가공은 특정한 기능을 띄는 물질의 입자를 나노 크기로 만드는 나노기술을 기능성 부여 물질을 원단 표면에 도포하는 것과 같은 가공단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세탁과정에서 기능을 상실하는 일반가공과는 달리 물질이 원단 내부에 안정적으로 부착돼 있어 세탁견뢰도가 뛰어나고 가공 후에도 원단의 부드러운 촉감과 초기외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나노가공은 발수·발유·방오가공 시 적용하는데 일반 의류시장은 물론 고기능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다.

한편, 새한은 알레르기 방지가공 및 나노기술 외에도 타박상의 통증을 완화하고 해독 및 동맥경화·당뇨병 방지효과가 있는 <비타민E가공>, 탄성 회복력이 탁월하고 보정효과가 뛰어나 다이어트용 스포츠웨어에 적용하는 기능성 원단인 <나노 파워>, 자외선 차단 및 흡한속건 기능을 가진 <Finecool-a>, 강력한 살균력과 향균성을 지닌 폴리에스터 원면 <나노실버 PSF> 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새한은 여러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을 상호 접목시킨 복합 다기능성 섬유제품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8/27>